

민간영역으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확산 및 시민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2021년 1월

김 남 지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영국
2. 훈련기관명 : 버밍엄대학교/SOCIAL LIFE
3. 훈련분야 : 문화
4. 훈련기간 : '19.1.21.~'21.1.20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김남지	과견연도	2019년
훈련분야	문화		
훈련과제	민간영역으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확산 및 시민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훈 련 국	영국		
훈련기관	버밍엄대학교/SOCIAL LIFE		
보 고 내 용			
제 목	영국의 Inculsive 정책 사례 검토를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매수	
내용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city, 都市)는 인간의 2대 거주형태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라고 사전에 정의됨. 이제까지 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하였으나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 도시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계됨.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향후 20년 안에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와 다인종국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서울시는 2014년부터 노인·장애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 기본적인 요소로 인지하고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14)」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4)를 공포하여 2021년부터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로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이 포함된 곳에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의무적 적용하고자 함 ○ 영국은 '95년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쳐 inclusive design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에 거쳐 디자인 정책이 활성화 되어 있음. 인크루시브 정책 확산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전문가 양성, 민관협업 촉진 등의 영국의 실제 교육 자료 및 주요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된 이 문서가 서울시 정책에 참고 되길 바람. 		

차 례

I .	서론	5
	1. 서론	5
II .	본론	8
	1.인크루시브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문헌 연구	8
	1) 유니버설 디자인	8
	2) 인클루시브 디자인	11
	3) 2개의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12
	2.영국의 디자인정책	14
	1) 정부 차원의 디자인 정책	17
	2) 런던의 도시 디자인 정책	16
	3. 영국의 Inclusive design 사례 연구	17
	1) LFA(London Festival of Architecture)	17
	2) Future Folye project	17
	3)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inclusive standard	20
	4) 공공 런던 현장 초안(Public London Charter,2020년 3월) 발표	31
	5) 런던의 건강한 거리(Healthy streets) 만들기 프로그램	33
	4. 교육프로그램 및 그 외 사례	37
	1) UDL	37
	2) National Design workshop	43
	3) 그 외	47
III .	결론	49
	1. 시사점	49
참고1	참고문헌	53

영국의 Inclusive 정책 사례 검토를 통해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I 서론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등 획일적 계획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장애 도시환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관점에서 포용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2016년 유엔 해비타트 III(UN- HABITAT III)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선언하면서 도시는 모든 시민들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공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였고 서울수도 사회적 배제현상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포용도시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또한 통계청 2019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에 의하면 20년 후 한국 사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일 것으로 예측

내국인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지만,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배경 인구는 2020년 222만 명에서 2031년 300만 명을 넘고, 2040년 35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 국가'가 명명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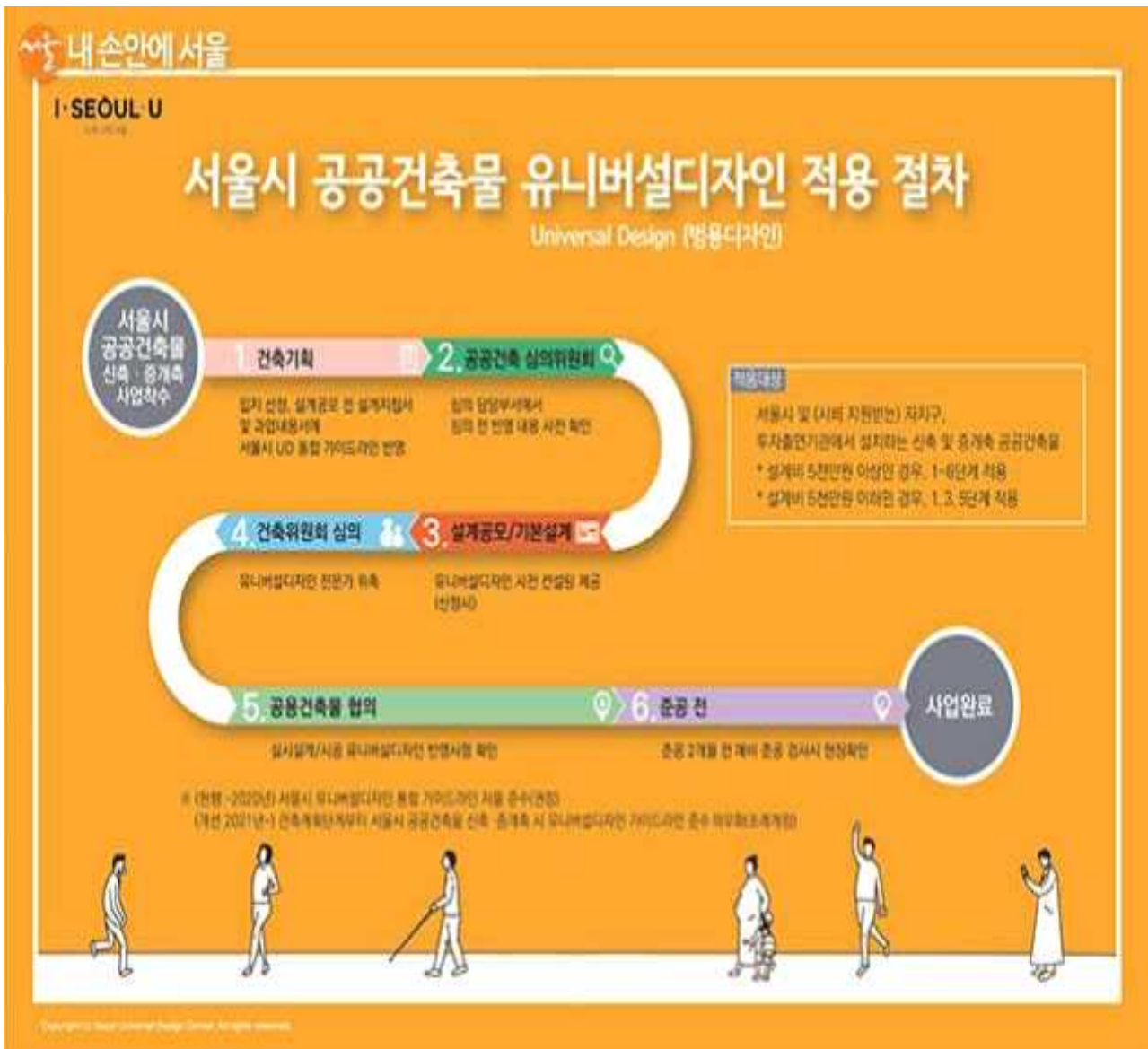
또한 유소년은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노인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지 않지만 단시간에 급격하게 고령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초과할 전망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함에 따라 한국은 2017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5년 초고

령 사회에 이를 전망

서울시도 머지않아 다가올 변화된 도시 환경을 대비와 삶의 질 향상, 공존, 공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디자인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부터 2020.9월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를 수립하였고 2021년부터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로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이 포함된 곳에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의무적 적용을 앞두고 있음

또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 보행, 공원조성 등 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할 계획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

주로 제품, 건축 등 물리적 디자인에서 장애에 대한 이슈에 중점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으로 발전. 영국은 '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인 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제정 이후 보행, 교통, 건축 모든 분야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 적용 됨

또한 런던시는 GLA의 근거가 되는 대런던 위원회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에서는 런던시장이 런던의 개발계획인 '공간개발전략(Spatial Development Strategy)', 일명 런던플랜(The London Plan)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런던시장은 런던지역의 개발(development)과 토지이용계획(land use)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담고 국가의 도시계획정책을 토대로 런던플랜을 작성해야하며 GLA는 설립 후 4년간에 걸친 연구와 컨설팅 그리고 공공심사를 거쳐 '16년까지의 런던 개발전략을 담은 런던플랜을 '04년에 공식적으로 공포하여 실행

'12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며 건축위원회(CABE)를 중심으로 공공분야의 디자인 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런던플랜과 연계하여 디자인을 통한 좋은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 디자인, 건축 환경 전문적으로 구성된 50명의 시장 직속 디자인 Advocate를 구성하고 Great London Authority Group(GLA Group)¹⁾내에서 환경을 구축하는 섹터로 팀 혹은 전체로 운영 중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이 고려되어 진행

이 연구는 영국의 inclusive design 사례연구를 통해 본격적 실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UD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클루시브 디자인과 그 원칙에 관련한 개념을 문헌을 통해 간략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영국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음. 특히 민간영역으로 인클루시브디자인을 활성화 시키는 접근방법은 앞으로 공공을 넘어 민간분야까지 확산 되어야하는 서울시 UD정책의 단계적 추진에 있어 참고사항이 되기를 소망함.

1) The Greater London의 전략적 행정을 담당하는 최상위 행정 기관으로 1999년에 창설됨. 런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접 선출된 시장과 조사 권한을 가진 25명의 런던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 다 4년 주기로 선출

II. 본론

1. 인크루시브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문헌 연구

1) 유니버설 디자인

1-1) 정의(유니버설디자인 선진도시화를 위한 정책연구(대전발전연구원.2010) 참고>)

- 전부의, 보편적인, 공통의 라는 의미의 ‘유니버설’과 계획, 설계, 구상을 의미하는 ‘디자인’이 어울려져 만들어진 용어
- 누구에게나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뜻함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창됨
- 별도로 개조하거나 특별히 설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자인을 의미하여, 그 대상은 장애인 및 고령자등의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 규정하여, 정상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라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지향
-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중심의 디자인, 평생디자인을 말하며, 이 디자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도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은 환경 심리 생태학에서 다양한 사용자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하나의 동등한 사용자 그룹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특별히 장애인들만을 배려한 디자인무장애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유니버설 디자인의 결과로 형성되는 환경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생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

1-2) 7원칙(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가?
- 모든 사용자들에게 같은 사용 방법을 제공하라
 - 가능할 경우 똑같이, 그렇지 않을 경우 동등하게
- 가능한 한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게 어떤 사용자든지 불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하라
-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한 규정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디자인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어필되도록 하라

○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사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 서두르거나,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
-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 왼손-오른손잡이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을 도모하라
-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용이하게 하라
- 사용자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라

○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복잡하기 않아 사용자의 기대에 일치하게

- 직감적으로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고, 사용시 피드백이 있는가?
-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라
-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력에 일치되게 하라
-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 기술에 부합되도록 하라
-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를 정리하라
- 작업이 완료된 후나 그 진행 중이라도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을 제공하라

○ 정보 이용의 용이(perceptive information)

사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 정보구조가 간단하고 복수의 전달 수단을 통해 정보입수가 가능 한가
-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 언어, 촉감을 사용
- 필수적인 정보와 주변 정보와의 적절한 비교를 제공하라
- 필수적인 정보는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 묘사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그 요소를 구별하라
 - 즉, 지시하거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쉽게 하라
- 감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나 기술들에 호환성 제공

○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실수를 하여도 위험하지 않게

-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복구가 가능한가?
-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를 배열하라
 - 대부분 쉽게 알아챌 수 있고 이미 사용된 적 있는 요소를 사용하여,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막아 놓을 것
- 위험하거나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라
- 안전성을 실패할 것을 대비하라
- 주의를 요하는 일에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라 .

○ 작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게

- 무의미한 반복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드리지 않고, 자연스런 자세로 사용이 가능한가?
-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 합리적으로 작동되는 힘들 사용하라
- 되풀이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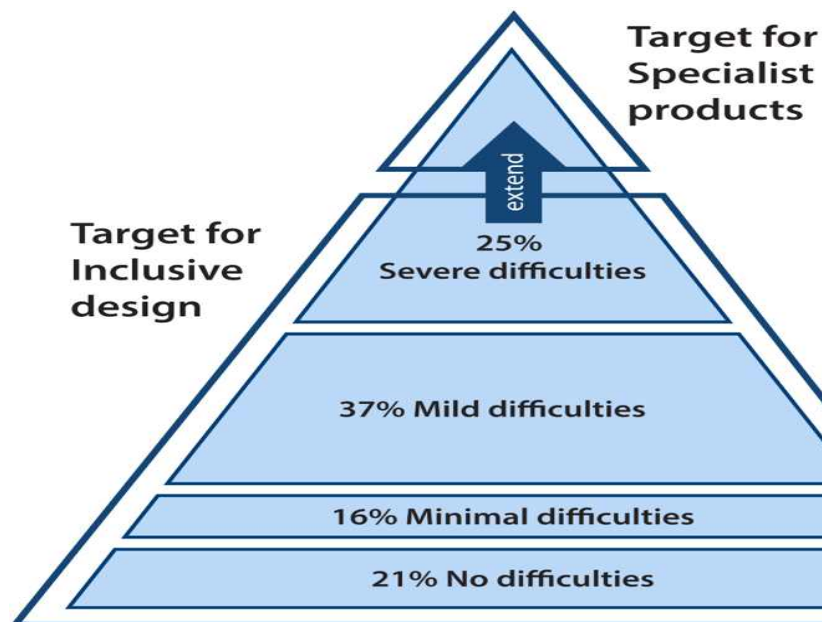
접근과 사용이 편한 크기와 공간을 확보하게

- 이동이나 수납이 용이하고 다양한 신체조건이 사용자와 오무이가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
- 중요한 요소들은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 모든 물건이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 모두에게 편하게 닿을 수 있도록
- 손이나 손잡이 크기의 변동을 고려
- 보조장치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

2) 인클루시브 디자인

2-1) 정의

- 영국표준연구소(2005)는 Inclusive Design을 '특별한 적응이나 특수화 설계 없이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류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설계'로 정의
- Inclusive Design는 전체 모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적절하다고 제안하지는 않음. 대신, Inclusive Design는 다음을 통해 모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설계 대응을 안내
 - 모집단의 가능한 최상의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군 및 파생상품군 개발.
 - 개별 제품마다 명확하고 뚜렷한 대상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
 - 다양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고객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각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 수준 감소.
-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 기술이 항상 필요하겠지만, Inclusive Design은 주류 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을 목표



(피라미드 모델은 인구 다양성의 연속성, 보급률 데이터와 난이도 정의는 마이크로소프트(2003) 조사에서 도출)

- 다양성의 피라미드 모델은 피라미드 상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가 솔루션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Inclusive design 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목표 시장을 확장하는 것을 어떻게 목표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

2-2) 5원칙(영국 design council case자료 의거)

- 디자인 프로세스의 중심에 사람
-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함
- 하나의 해결책으로 모든 사용자들을 충족할 수 없는 곳에 선택을 제공
- 사용의 유연성을 제공
- 모두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편의와 즐거움이 있는 건물과 환경을 제공

3) 2개의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3-1) 공통점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친화적인 디자인
- 정상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제공
- 고령자의 증가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확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등과 같은 가치 변화 트렌드에 부합
- 사회적 약자와 강제가 공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성한다는 목표

3-2) 차이점

- 보편과 포괄의 개념
 - 미국을 중심으로 쓰이는 Universal Design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Inclusive design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
 - 차이는 사소하지만 Universal Design의 개념의 태동과도 관계가 있고, 그 실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Universal Design은 정상인 위주의 제품과 환경을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에서 출발

→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품, 환경을 만들자는 것

- Inclusive design은 메인 타겟이 되는 사용자가 아닌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사용자에게 포함 될 수 있는 디자인

○ 디자인의 차이점

- Universal Design은 장애인, 노인,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있어 조금은 뒤떨어지고 투박하여 미적인 면보다는 기능적
- Inclusive design은 단순하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Good 디자인 지향

※ Good design이란

우수한 설계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 엄격한 포괄적 설계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고 반복 가능한 설계 성공을 보장. 특히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제품 개발 수명주기 후반에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개념 설계 단계 초기에 우수하고 포괄적인 설계 원칙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은 설계 위원회(Mynott et al.,1994)의 보고서에 의해 입증됨. 이 보고서는 출시 후의 변경 비용이 개념 설계 중에 이루어진 변경보다 1만 배 더 든다는 것을 발견

사용자 다양성의 불충분한 수용에 대한 하나의 값비싼 예는 미국 재무부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재무부가 모든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크기와 질감으로 설계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차별했다고 판결. 이 판결에 따라 2011년 재무부는 약 66억 달러의 비용으로 미국 지폐에 촉각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Bureau of Printing and Printing, 2011). 그 후, 이 제안은 여전히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 무료 통화 판독기 장치를 배포

○ 과정

- Universal Design은 파트너 고객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디자인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함
- Inclusive design을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평가과정, Focus Group 검증, 사용성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필요

2. 영국의 디자인 정책

1) 정부차원의 디자인 정책

1-1) 연혁

- 1915년 디자인산업협회(Design and Industry Association) 설립
- 1932년 예술산업위원회(Committee on art and Industry), 1934년 예술산업협의회(council for art and Industry), 1944년 영국 디자인위원회(British design council)이 차례로 창립
- 영국은 80년대부터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마가렛대처 총리(1979~1990집권) 'Design or Resign' → 토니블레어(1994~2007 집권) 'cool Britannia' → 고든브라운(2007~2010) 'Creative Hub' 로 이어지는 강력한 디자인 정책 추진

1-2) Design council(www.design-council.org.uk)

- 194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4월 CABE를 합병함
- 영국 정부기관인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주 업무로는 일반 업계, 교육 및 정부기관의 일선 담당자들이 효과적인 디자인이 업무의 개선에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를 일깨우고 좋은 아이디어를 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및 유형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도구를 제공하는 일종의 컨설팅 업무를 담당
- 정부기관과 관련한 디자인 업무에는 정부기관 담당자들에 대해 우수한 디자인을 통해 공공분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고객중심의 사고방식을 지향하게 함.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설립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시, 새로운 기업 이미지 작업에 투자하거나 업무를 소개하는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할 때 디자인에 대한 결정이 요구됨. 이 때 훌륭한 사례에 대한 정보 및 실질적인 디자인 도구를 제공하여 정부기관이 효과적인 디자인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디자인을 통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7년부터 Dott(Design of the time) 캠페인 출범하여 영국 주요 5개 지역 중심으로 10년간 걸쳐 전개하여 시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

-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품 및 디자인 질 향상을 목표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도모
- 학교/커뮤니티, 에너지/환경, 식품/영양, 건강/웰빙, 지속가능한 관광, 도시/농촌, 운송/교육, 주택/주거환경 총 8개 분야를 주요 테마로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디자이너 및 시민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련의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된 디자인 프로세스 분야를 담당하거나 디자이너들의 역량 제고 및 소비자들의 디자인인지도 제고 책임, 디자인 관련 각종 행사 및 전시회를 통해 도입
- Design Council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는 Home Office, DTI등이 있으며 Home Office와는 디자인을 통한 범죄 감소, DTI 및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와는 영국의 디자인, 혁신 및 창조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1-3)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the built enviroment)

- 공공디자인의 질이 예산의 문제에서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비 가치의 문제에서 찾아야한다는 인식에서 디자인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영국국가 건축위원회로 1999년 공공디자인의 제도화된 기관으로 설립되어 주요 건축 프로젝트를 살펴보며 인허가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 현재는 Design council과 합병되어 운영
- 공공도서관, 학교, 병원, 공원 놀이터, 문화시설, 지역공동체 시설과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대다수의 시민이고 그 시설의 이용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디자인과 관련된 현황을 평가, 지자체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건물과 외부 공간 디자인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
- CABE는 예산 절약으로 인해 디자인의 질이 저하될 경우 이는 결코 경제적이 아니라는 점 즉 공공디자인의 현실화 과정에서 예산의 절약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제시함 그리하여 디자이너가 아닌 의사결정권자들이 무엇이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제공함
- 특히 외부 전문가 의견(Design review)을 활용하여 계획 적용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을 제공

2-2) 런던의 도시 디자인 정책

- 런던은 런던광역시(GLA)과 32개 borough/ city of london으로 2 단계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런던광역시는 Great London Authority Act에 근거하여 운영됨
- 런던광역시청은 교통, 토지이용, 환경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에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MOPAC(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 런던 시와 경찰청 합작회사), LONDON FIRE COMMISSIONER, Transport for London, 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 Old oak and park development corp 5개 조직구조로 되어있고 33개 Borough는 교육, 주택, 지역계획/개발규제, 지방세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
- 2004년 영국정부가 새로 도입한 도시계획시스템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플랜을 수립하여 도시 공간을 여러 자치구와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상호 유기적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2018년에는 Inclusive london을 배포하였는데 시장은 불평등, 다양성 그리고 포용전략을 6개의 챕터(살기 좋은 공간 만들기, 젊은 사람들이 친화도시, 일과 비즈니스를 위한 좋은 장소 만들기, 접근하기 좋은 도시,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기기 좋은 도시, 조직별 사례)로 나눠 담고 있음
- 특히 런던은 공공디자인의 핵심으로 거리 디자인을 내세우는데 산업, 안전, 교통과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설치물이 필요하고 거리의 아늑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들과 교통정온화 장치로 보행자를 보호하며 야간의 경우 조명은 관광객 유치 및 범죄예방을 위해 계획이 필요하며, 기존 원칙을 준수하며 다양성을 기초로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을 만들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 만들기가 주 목표
 - 레저블 런던(Legible London) 프로젝트(통합형 보행자 길 찾기 시스템)를 예를 들면 콘셉트 단계부터 관광객의 심리적 안전감, 골목상권의 활성화, 예산의 중복 투자 등 도시 문제 해결을 디자인으로 해결
- 2019년 new london plan의 초안을 발표. 초안에는 교통, 환경, 경제, 주택, 문화, 건강 및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성장 정책을 채택하고 Design, Housing, Social Infrastructure, Economy, Heritage and Culture ,Green Infrastructure and Natural Environment, Sustainable Infrastructure, Transport, Funding the London Plan, Monitoring에 이르는 10개의 주제 기반 정책과 실행을 소개

3. Inclusive design 사례 연구

1) 각종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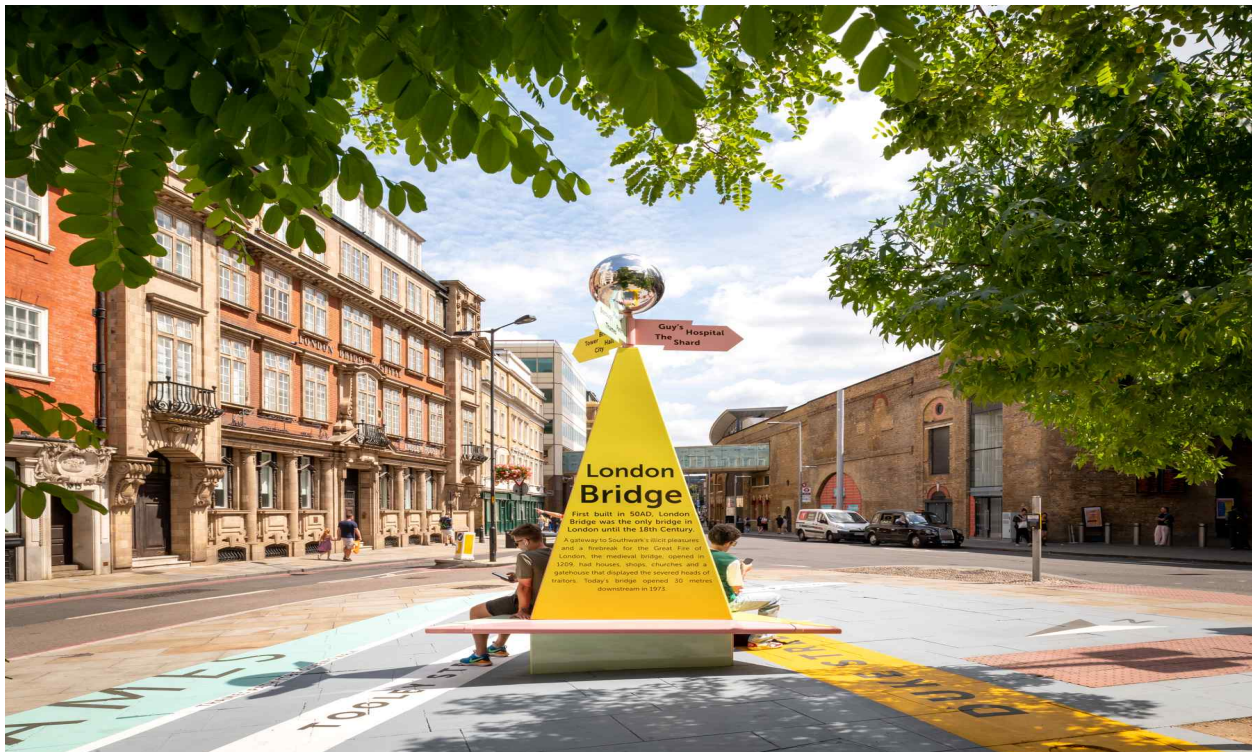
1-1) LFA(London Festival of Architecture)

○ 행사 연혁

- 런던 건축 축제는 2004년부터 도시 구조물과 관련 다양한 건축가와 디자이너,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매해 2회 가량 시행하고 일반인 대상 무료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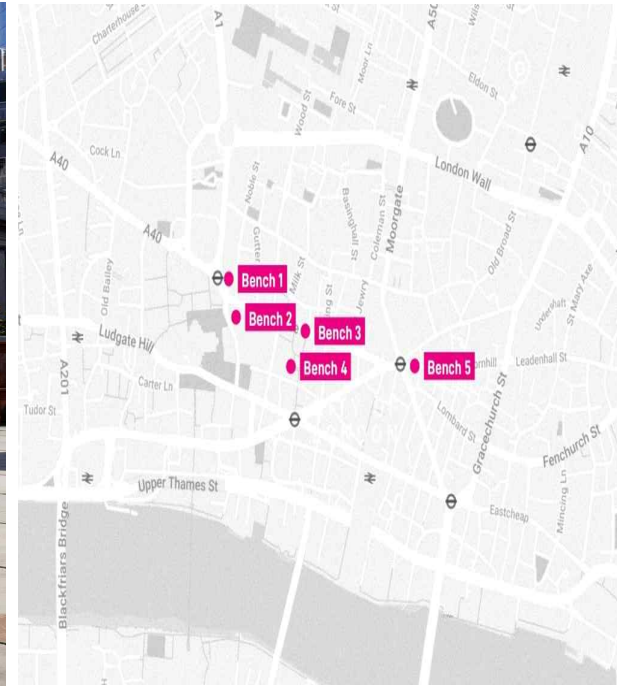
○ 주요 진행 프로그램 및 결과물

- '18년에는 Team London Bridge와 협업하여 혼잡한 Toley street 풍경 개선 및 최근 1억 파운드 규모의 재개발 중인 런던브리 지역 앞 보행자 사인을 시각화하는 공모전 실시 '20년 10월 Toley street 트라이앵글 설치



도로 위에 인쇄된 런던 브리지 주변 지역 축척지도와 도로명, 주요 랜드마크 등이 완비된 대형 표지판, 현지 방향과 정보가 적힌 대형 표지판, 행인들이 쉴 수 있는 벤치 등 3가지 요소 완비

- '19년은 2)The Cheapside Business Alliance와 손잡고 새로운 인재를 선보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를 돌아볼 수 있는 휴식공간과 성찰의 장을 제공하는 취지의 City Bench 디자인 공모전 진행



- 대부분의 행사가 건축회사나 사회적 기업에서 주제에 맞게 대부분 무료로 진행함
 - ▶ RIBA³⁾(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자체 전시(New Community Architecture) 및 V&A와 협업 전시(A home for all : Six Experiments in Social Housing), 런던 건축가 가이드 투어(Dockland, Olympic Park), 각종 강의 진행
 - ▶ '19년 경계(Boundary)가 주제에 맞춰 Social life에서는 시각, 냄새, 소리가 경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무료 워크숍 실시

2) city of london에 위치한 cheapside지역의 경제 연합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이벤트, 보행자 맵 개발 등 다양한 활동

3)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는 영국 건축가들의 직능단체로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소속되어 있음. 영국 대학의 건축학과의 모듈, 아카데미 스트리밍을 주기적으로 관리, 평가하고 있으며 RIBA인증을 받은 기관의 건축학과에서 학사, 석사, 기타 Placement 등의 과정을 거친 후 RIBA 소속 건축가로서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활동 가능

1-2)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LONDON DESIGN FESTIVAL)

○ 행사 연혁(<https://www.londondesignfestival.com>)

- 2003년부터 런던을 세계의 디자인 수도로 홍보한다는 비전으로 매년 9월 열리고 있는 디자인 축제
-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안, 런던 시내 전체는 갤러리가 되고 지역과 거리 곳곳은 전시실이 됨. 오래된 건축물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건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브제가 설치되거나 신진 디자이너들의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리며, 디자인 스튜디오들은 그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일반인에게 공간을 개방

○ 2020년 주요 프로그램

- 랜드마크 프로젝트, 디자인 국제포럼, 디자인 디스트릭트⁴⁾,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Michael Anastasiades Studio : Mint Street



Studio Weave : The Hothouse



Various Designers : Connected



Design Centre, Chelsea Harbour : Focus/20



ADORNO : SWEDEN: VIRTUAL DESIGN DESTINATION



Arteriors : Arteriors Focus 2020



grape lab x LDF Art Collab : Together We Are
Straw Hat | Rebirth Your Art



Marlene Huissoud : Unity



Cassina : The Cassina Perspectiv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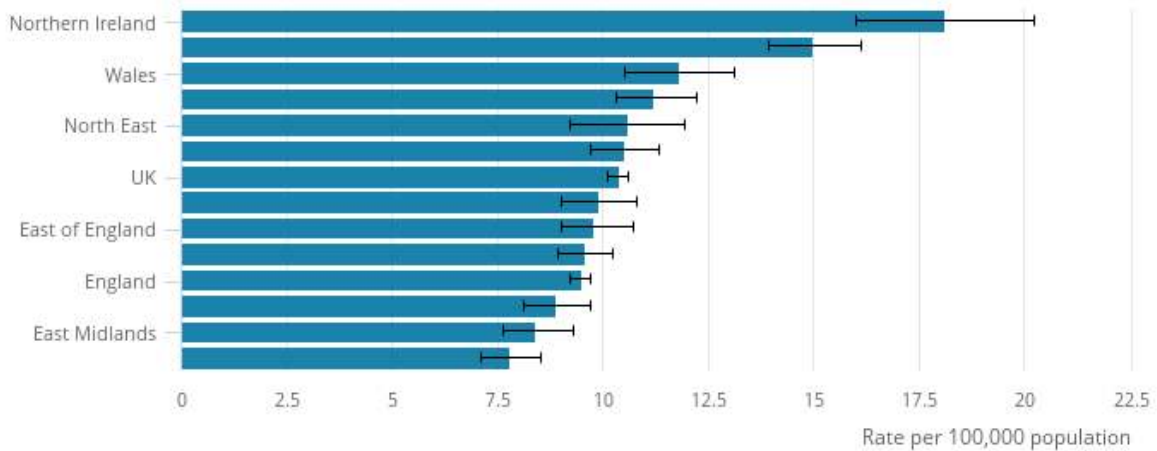
4) 새롭게 떠오르는 장소를 디자인 district로 선정하여 다양한 실험, 2020년에는 킹스크로스 디자인 디스트릭트에 설치 미술을 선보임. 이 설치물은 20년간 지속 가능성 중심의 공공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런던 건축 및 아트 스튜디오 머프 Muf와 아틀리에 원 Atelier One이 ‘온 데얼 웨이 On Their Way’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다 자란 성목을 킹스크스로 옮겨와 배치. 화살표를 연상시키듯 나무의 끝을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으면 킹스크로스 역에서 그래너리 스퀘어를 거쳐 콜 드롭스 야드로 이어지며 다음 나무가 있는 목적지까지 안내. 나무는 의도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과 각도에서 발견되며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킹스크로스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특성을 강조했다음

2) Future Folye project

2-1) 프로젝트 시행 배경

- 영국 통계청에서 발행한 자살률 보고서(2016년 기준)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영국 내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

Figure 4: Age-standardised suicide rates for the UK, constituent countries and English regions, for persons registered in 2016 (with 95% confidence intervals)



- 특히 북아일랜드 북서부에 있는 약 8만 5천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데리/런던더리의 6마일에 이르는 Folye강 다리에서 자살사건이 급증하면서 시의 부담감이 커졌고, 2016년 북아일랜드 공중보건청 후원아래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해결방안 강구
- 2016.3월부터 2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실행을 앞두고 있음.

2-2) 프로젝트 수행 방법

- 도시의 웰빙과 시민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inclusive 디자인과 예술을 이용하여 도시지역에 안전한 공용 공간 창조
- 연령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 Design age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디자인inclusive디자인을 주도한 영국 왕립예술대학원 헬렌 햄린 디자인 센터와 Public Health NI가 주축이 되어 광범위한 시민 커뮤니티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프로젝트 수행

- 부정적이었던 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화 시키는데 중점을 주어 항상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

2-3) 적용 예정인 inclusive 디자인 핵심 구축 예

○ Foyle Bubbles (그림 1)

-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변 주변을 배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일련의 작은 휴대용 공간
- 도시 축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예술, 레저, 상업단체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예를 들어 농민시장, 낚시강습회, 댄스그룹, 조용한 공간 등 강을 따라 행사를 만들거나 지원가능. 이 지역에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블스'에 있다가 강에서 누군가가 위기에 처하면 도울 수 있는 훈련도 받게 할 예정



Figure 1 - The Foyle Bubbles

○ The Foyle Reeds

- 다리를 따라 일어난 자살 행위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형물로 북아일랜드에 구현 될 가장 큰 인터랙티브 아트 설치물.
- 강변을 따라 자라는 갈대의 상징을 이용해 일반인과 상호 작용하는

LED 조명이 달린 1만2000여 개의 알루미늄 '갈대'로 구성.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갈대를 '분양'받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 빛의 색과 강도를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다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도시의 지역 아이콘으로 바꿀 수 있게 구현될 예정



Figure 2- The Foyle Reeds lit up at night (left) and controlled through an app (right)

- 또한 디지털 플랫폼, 팝업 공간, 인식 캠페인, 예술 설치 및 건축 개입에서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은 활동과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공간의 물리적 설계에서부터 소유자의 육성을 돕는 문화 프로그래밍에 이르기까지 유형과 무형의 공유 안전 공간을 모두 개발

2-4) 프로젝트 핵심요소

- 지역 주민들이 공공 공간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공공공간의 사용법을 '재학습'하고 그에 따라 물리적 공간의 설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화적 프로그래밍을 둘러싼 좀 더 전체적인 학습을 통해 소속감을 더 가지게 될 예정
- 예술, 기술, 디자인,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역 사회의 반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주도 프로젝트로 설계자가 프로세스의 핵심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치, 경제 및 기반구조 과제에 대한 관점을 유지가 핵심

3)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inclusive standard

3-1) 개요

- 런던 스트랫포드 재생사업 추진배경
 - 1960 년대에 런던의 많은 부두가 문을 닫은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지역 쇠퇴
 - 1981 년과 1998 년 사이에 런던 도크 랜즈 (London Docklands)는 도시 재생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중으로 Stratford는 London Docklands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높고 건강 수준이 열악한 전국에서 가장 빈곤 한 지역 사회 중 하나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경 품질이 떨어짐
 - 2012 년 런던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현재는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으로 명명

-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개요
 - 추진기관 : LLDC's(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s)
 - 협력기관 : Global Disability Innovation Hub (GDI Hub)
 - 추진목표
 - '30 년까지 공원에 10,000 개가 넘는 새로운 주택이 건설하고 녹지로 구성된 5개의 주거지로 구성되며 주택의 3 분의 1 정도를 소셜믹스로 건설 예정.
 - 3 ~ 18 세 사이에 약 2,000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아카데미 건설
 - '30 년까지 BBC 본사 및 각종 대학시설 유치로 20,000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 50 억 파운드 이상이 지역으로 유입 될 것으로 예상

-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inclusive standard란
 - 런던광역시청의 5개 기구 중 하나인 런던 레거시 개발 주식회사의 (LLDC's) Inclusive Design Standards (IDS)의 제2판으로 '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주경기장으로 사용한 런던 동부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 주변의 모든 후속 개발 프로젝트들이 Inclusive Design Standards(IDS) 발표

3-2) Inclusive Design standards의 4개 핵심 파트

각 핵심 파트는 설계 의도와 inclusive design 표준안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됨

- 디자인 설계의도 : 약간의 배경지식과 inclusive design의 개념 제시
- inclusive design 표준안 : Inclusive design으로 예상되는 모범사례 제시

○ Achieving inclusive neighborhoods(포용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 목표 : 장애, 나이, 성별, 성적 성향, 인종 또는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완전히 포용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로 주택, 공공 건물, 공간 및 모든 서비스 및 시설에 적용
- 전략 및 고려요소
 - 레저시 커뮤니티 계획(LCS)은 건물 높이를 포함하는 공원 전체의 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 개방된 공간, 접근 계획, 거리 배치, 인프라 개발 등 5개 지역사회에 모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 LCS의 중심에는 'Lifetime Neighborhoods⁵⁾'만들기에 있으며, 이는 다시 포용적인 지역사회는 화합적이고 성공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런던 계획은 좋은 성장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을 인식
 - 강력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성과 평등성 거리와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며,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장소를 만들고, 소속감을 키우며, 지역사회의 구매를 장려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고, 주어진 기회를 누려야 함. 이것은 분리를 피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 있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선택과 존엄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환영하는 환경이 되어야 함
 - LLDC와 그 파트너들은 노인, 장애인, 대가족, 어린 자녀와 아기를 둔 가족, 다양한 종교 집단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구성원을 고려해야 함

5) 'Lifetime Neighborhoods(평생 이웃)'이란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Accessible london 1에서 평생 이웃이라는 개념을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을 정의

1. 돌아다닐 수 있음 - 연결이 잘 되어 있고 걸을 수 있는 이웃
2. 주택, 접근 가능한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 가능하고 적응 가능한 용도 및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3. 다양성,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는 응집형 공동체에 속한다.

[서비스 및 편의 시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 서비스로는 • 상점 및 편의시설에 대한 현지 접근 • 인접 지역 내 사회적 공간 및 교환 장소 • 자원봉사와 고용을 위한 기회 및 • 사회 기반 시설⁶⁾에 대한 접근이 포괄적이고 연령 친화적인 이웃의 형성에 기여

[연결된 환경 만들기]

- 런던 교통 전략²⁷⁾은 접근성과 포용성이 건강한 거리의 계획과 설계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 건강한 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LLDC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시간을 보내고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개발될 것을 요구.
- 사이클과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한 보행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 필요
- 사회성, 건강 및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이웃들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할 공간과 접근 서비스와 시설을 즐기도록 장려하도록 설계
- 연결된 이웃들은 매일의 목적지 사이의 경로와 거리의 물리적 설계뿐만 아니라,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필요를 포함하는 특징과 시설도 고려
 - 여행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접근 가능한 화장실 시설
 - 방향 및 길 찾기에 도움이 되는 표지판 및 가로경관 설계

○ Movement(접근성)

- 공원을 포함한 외부 지역 주변의 이동, 수로 및 공공 영역 영역에 대한 접근에 초점
- 13개 원칙 규정 : public realm, wayfinding and orientation, signage, Pedestrian routes, changes in level, external lighting, bridge and subway for pedestrian use, cycling infrastructure, shared space, parking and drop-off, Access to public toilets, Assistance dog facilities, inclusive play

○ Residential development

- 엘리자베스 여왕 올림픽 공원의 주택 공급을 고려할 때 지역 인구통계학적 트렌트를 포함한 지역 인구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

6) 사회 기반 시설은 보건소, 보육원, 학교, 지역사회, 문화, 놀이,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시설, 예배 장소, 소방서, 치안 및 기타 지역사회 안전 시설과 같은 광범위한 시설을 포함

7) <https://tfl.gov.uk/corporate/about-tfl/the-mayors-transport-strategy>

- 성공적인 새 주택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을 이용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하는 것이 주요 성공요인
- inclusive housing, student accommodation의 2개 원칙 적용한 필수 주택공급

HOUSING TYPE	GUIDANCE REQUIRED	PROVISION REQUIRED
General Needs Housing Category 2 - Accessible and adaptable dwellings	The London Plan and associated SPGs Local Planning Policy (as appropriate) Approved Document M of the Building Regulations Volume 1 dwellings	모든 주택 및 주택거주권 90%
General Needs Housing Category 3 - Wheelchair user dwellings	The London Plan and associated SPGs Local Planning Policy (as appropriate) Approved Document M of the Building Regulations Volume 1 dwellings	유형별 및 주택거주권 의 10%
Specialist Housing for Older people	The London Plan Local Planning Policy (as appropriate)	To be agreed on a site by site basis with the LLDC

○ Public buildings

- 공공 건물 주변의 이동에 초점을 두고 주로 공공에 개방되고 공공의 기능을 제공하는 건물, 장소, 시설들이 대상으로 지역사회 센터, 박물관, 극장, 문화 건물, 스포츠 장소, 카페, 식당 및 소매 시설과 같은 건물들이 포함
-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 주변 공공 건물들은 성격과 크기가 다양하나 모든 건물 사용자를 위해 일관된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
- 14개 원칙 제시: entering the building, horizontal circulation, vertical circulation, sanitary facilities, changing facilities, multi-faith facilities(including wash cubicles), audience seating, Refreshment facilities, First aid facilities, Internal Lighting, finishes, signs and information, Acoustics and communication systems, Emergency egress

3-3) Inclusive Design standards기본이 되는 단계별 디자인 정책

	요약	적용
Equality Act 2010		
<p>2010년 평등법은 차별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p>	<p>2010년 평등법은 9개의 '보호된 특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차별금지법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장애 • 성별 재배치 • 결혼 및 시민 동반자 관계 • 임신 및 출산 • 레이스 • 종교 또는 신념 • 섹스 • 성적 성향 	<p>이 법은 다음에 적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 •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 • 영국의 협회 • 고용주. <p>그것은 요금이 부과되든 아니든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p>
<p>공공부문 평등 의무</p>	<p>공공 부문 평등 의무는 2010년 평등법에 규정된 일반 평등 의무를 포함한다.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해 금지된 불법 차별, 괴롭힘, 피해 및 기타 행위를 제거한다. • 보호되는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기회 균등성 향상 • 보호되는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p>모든 공공 기관(LLDC 및 기획 당국 포함)</p>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p>국가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는 영국을 위한 정부의 계획 정책과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p> <p>그것은 지역적으로 준비된 주택 및 기타 개발을 위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p>	<p>NPPF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p> <p>계획 정책과 결정은 개발이 현재와 미래의 사용자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편의성과 범죄와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공포로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건강과 복지를 촉진하는 장소를 만들어내도록 보장해야 한다.</p>	<p>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획 정책과 결정</p>

	요약	적용
The London Plan 2016 (Including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런던의 전반적인 전략 계획, 그 정책은 계획 적용에 대한 결정을 안내한다.	관련 정책: 2.4 2012년 게임 및 레거시 3.8 주택선택 6.10 워킹 7.1 평생 이웃들 7.2 포용적 환경 7.5 공공 영역	런던의 모든 정책에 적용
런던 계획 정책 3.8은 건축 규정의 M4부에서 정의한 접근 가능한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	접근 가능한 런던 보조 계획 지침 2014는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환경의 생성 및 촉진에 관한 런던 계획 2011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	
런던 계획 정책 7.2는 개발을 가장 높은 수준의 포용적 설계에 전달하기 위한 특정 요건을 제시한다.	접근 가능한 런던 보조 계획 지침 2014는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환경의 생성 및 촉진에 관한 런던 계획 2011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	
Local Planning Policies		
LLDC Local Plan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계, 유지 및 구축이 가능한 포용 정책의 건물 및 장소 조성	비주거적 제안은 모든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레거시 코퍼레이션의 포괄적 설계 표준의 모든 해당 요소를 통합하여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거 제안은 모든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건물 규정 M 파트 2의 선택적 요건 M4 (2) 범주 2에 따라 90%의 주거지를 제공하고, 선택적 요건 M4 (3)에 따라 10%의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	로컬 플랜 지역에 의거해서 적용됨

	요약	적용
LLDC Guidance		
Design Quality Policy	<p>모든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설계를 달성하기 위한 LLDC의 비전을 설정한다.</p> <p>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과 동런던 전역에 높은 수준의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원칙, 프로세스 및 기술 요건을 식별하는 설계 품질 제공 계획의 기초를 형성한다.</p>	<p>LLDC 계획 경계 내의 모든 건물</p> <p>프로젝트(레거시 지역사회 계획 포함)</p>
Inclusive Design Standards	<p>위에서 언급한 간행물을 포함한 기존 지침에 기초한 LLDC 모범사례 지침 및 권장사항.</p> <p>이 표준은 개발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LLDC가 달성한 포용적 설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단일 문서다.</p>	<p>LLDC 계획 경계 내의 모든 건물</p> <p>프로젝트(레거시 지역사회 계획 포함)</p>
Park Design Guide	<p>LLDC의 공원 설계 안내서는 제3자 설계자, 개발자 및 토지 관리자들에게 제안된 이웃 및 경관 개선과 관련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설계 원칙을 제공</p>	<p>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과 LLDC 계획 경계 내 모든 조경 및 공공 영역</p>

	요약	적용
Technical housing standards		
국가별 공간 표준	국가적으로 기술된 공간 표준은 지방 당국이 사용하는 기존의 다른 공간 표준을 대체한다. 그것은 건축 규정이 아니며 오로지 기술 계획 표준으로서 계획 시스템 내에 남아 있다.	런던의 모든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
Building Regulations		
건축규정의 M부	주거 이외의 주거 및 건물의 건물 접근 및 사용에 대한 건축 규정 및 구축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위한 기준선을 제공한다. 승인된 문서에 제시된 지침은 최소 법적 요건	
승인된 문서 M(ADM) - Vol 1: 거주지	2016년 개정판 '승인 문서 M: 건축물 접근 및 사용' 개정판 1권: 주거용'은 주거용만 포함하며 업데이트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3을 소개한다. 주거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주 1: 방문 가능한 주택 • 범주 2: 접근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주택 • 범주 3: 휠체어 사용자 주거 	영국에 새로 지은 모든 주택들. 범주 2와 3은 계획 조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승인된 문서 M(ADM) - Vol 2: 주거 이외의 건물	2015년 판은 주거지를 제외한 다른 건물들을 다루고 있다.	영국의 모든 새로운 건축 및 개조 프로젝트
승인된 문서 K(AD K) 추락, 충돌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2013년 판은 '승인된 문서 N: 유리 - 충격과 관련된 안전'을 통합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다. '승인된 문서 M: 건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수록된 일부 중복 지침과 함께 개방 및 청소'.	영국의 모든 새로운 건축 및 개조 프로젝트

4) 공공 런던 현장 초안(Public London Charter, 2020년 3월) 발표

- 공공 영역⁸⁾의 사유화를 제한하고 모든 런던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에 적용해야하는 8가지의 기본 원칙을 도출한 공공 런던 현장(Public London Charter, 2020년 3월) 초안 발표
 - ▶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공공 공간(Public welcome)
 - 공공장소는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개방적이도록 관리. 깨끗하게 유지되고, 적정하고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 비 바람 및 강한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피난처가 있는 공간 및 누구든 잠시 멈춰 쉬어갈 수 있는 휴게장소,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공공 생활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 개방성(openness)
 - 공공 공간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하며, 최대한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레벨을 제공해야한다. 토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이 공간은 공공 영역의 한 부분임을 유의
 - ▶ 제한하지 않는 사용(Unrestricted Use)
 - 모든 사용자는 이동, 휴식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공공공간의 활동을 허락받을 수 있다. 공공 공간은 밤낮으로 공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관리를 제외하고는 대중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 규칙만 가지고 있어야 함
 - ▶ 커뮤니티 중심(Community Focus)
 - 공공영역은 사용자들이 만나고 협동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

8) 공공영역(Public realm) : 빌딩 사이에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간, 개인 소유 및 국가 소유에 관계없이 탭즈와 런던 강가를 포함한 골목 및 도로, 마켓과 쇼핑몰, 공중 정원, 박물관등도 공공 영역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도록 관리되어야하고 공동체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런던의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반영한 문화적 활동과 커뮤니티가 주관하도록 해야함

▶ 무료(Free of Charge)

- 공공공간은 반드시 공공에게 먼저 무료로 제공되어야한다. 지역 및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고려하여 무료 이벤트와 티켓 판매 또는 상업 이벤트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티켓 판매 시에는 먼저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미리 고지되어야하며 그 공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과 즐거움을 위해 영향력을 최소화

▶ 사적 보호(Privacy)

- 공공장소는 반드시 모든 사용자의 사생활 및 사적 재산을 존중하도록 관리되어야한다. CCTV, 다른 감시 또는 데이터 수집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합법적이고 규제 기관의 실무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즉 그것들은 생체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투명성(Transparency)

- 공공 런던 현장의 준수는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공간의 소유자 및 관리 회사의 세부사항,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온라인 및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규정은 투명하고 이해당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함

▶ 좋은 관리(Good stewardship)

- 공공 공간은 반드시 모든 런던시민들 대신하여 관리되어야 함. 일상적인 감독은 비공식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용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감독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한 제한의 시행은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감독자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5) 런던의 건강한 거리(Healthy streets) 만들기 프로그램

5-1) 추진배경

- 지난 몇 십년에 걸쳐 자동차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사람들은 육체적 활동이 줄고 있으며, 특히 40%넘는 런던시민이 최소 일주일 150분으로 권고되는 활동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며, 28%는 일주일에 30분도 움직이지 않아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매일 일상생활에서 활력(운동)을 높일 수 있도록 더 걸을 수 있고, 사이클링을 할 수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물리적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
- 공공교통수단이 런던시민의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2014년 TLF 정책 최초로 Health Action Plan 정책을 포함, 최소한 하루에 20분은 걸거나 사이클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

[영국 건강한 거리 만들기 사업추진 내용]

사업명	연도	추진내용
TfL Health Action Plan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리에 대한 재 검토 - 차 사용에 대한 효과 분석 - 걷기, 사이클링, 대중교통을 우선할 수 있는 거리레벨, 네트워크 레벨, 전략레벨의 접근법 고찰
The London Plan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건강 관련 정책 결정시 the Healthy Streets Approach를 우선적으로 적용

5-2) 측정 지표(10개)

- 런던시민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건강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를 지표 구성
- Lucy Saunder라는 공공건강 및 교통 전문가가 건강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10개의 지표 개발
- 사용되는 지표는 아래와 같음



① 다양한 계층의 보행자
(Pedestrians from all walks of life)

- 런던의 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걷고, 시간을 보내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열린 장소가 되어야 한다.

② 사람들은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선택
(People choose to walk, cycle and use public transport)

- 교통 체계가 잘 정비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

③ 깨끗한 공기(Clean air)

- 공기질 개선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불공평한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④ 안전감(People feel safe)

- 모든 공동체는 우리의 거리에서 항상 편안하고 안전해야 한다. 사람들은 도로의 위험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⑤ 너무 시끄럽지 않기(Not too noisy)

- 교통의 소음 영향을 줄이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거리의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다.

⑥ 쉽게 건널수 있음(Easy to cross)

- 길을 건너기 쉽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은 도보로 장려하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데 중요하다.

⑦ 정지 및 휴식장소(Places to stop and rest)

- 휴식소가 부족하면 특정 집단의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그늘과 쉼터(Shade and shelter)

- 날씨가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늘과 쉼터를 제공

⑨ 편안함(People feel relaxed)

- 거리가 자동차에 의해 선점되지 않고, 포장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혼잡하

거나 더러워지거나 황폐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것이다.

⑩ 볼거리와 즐길 것(Things to see and do)

-사람들은 도보 시 매력적인 경치, 건물, 공원 및 식물, 거리 예술로 흥미롭고 자극적일 때 거리를 더 많이 이용하기 쉽다

5-3) 'healthy streets for all' 진행 사례

- 런던시와 TFL은 2017.11월 18개의 런던 자치구가 3억 3000만 파운드의 펀딩으로 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 2019.3월 5억 340만 파운드로 기금을 늘려 런던 전역에 걸쳐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공모를 진행하여 브롬리, 캠든, 크로이돈, 엔필드, 휴슬로우, 램베스, 뉴햄, 사우스워크, 타워 햄릿, 레드브릿지, 런던 시티 코퍼레이션의 11곳의 런던 자치구가 지원받음. 몇 개 구의 진행 프로젝트는 사례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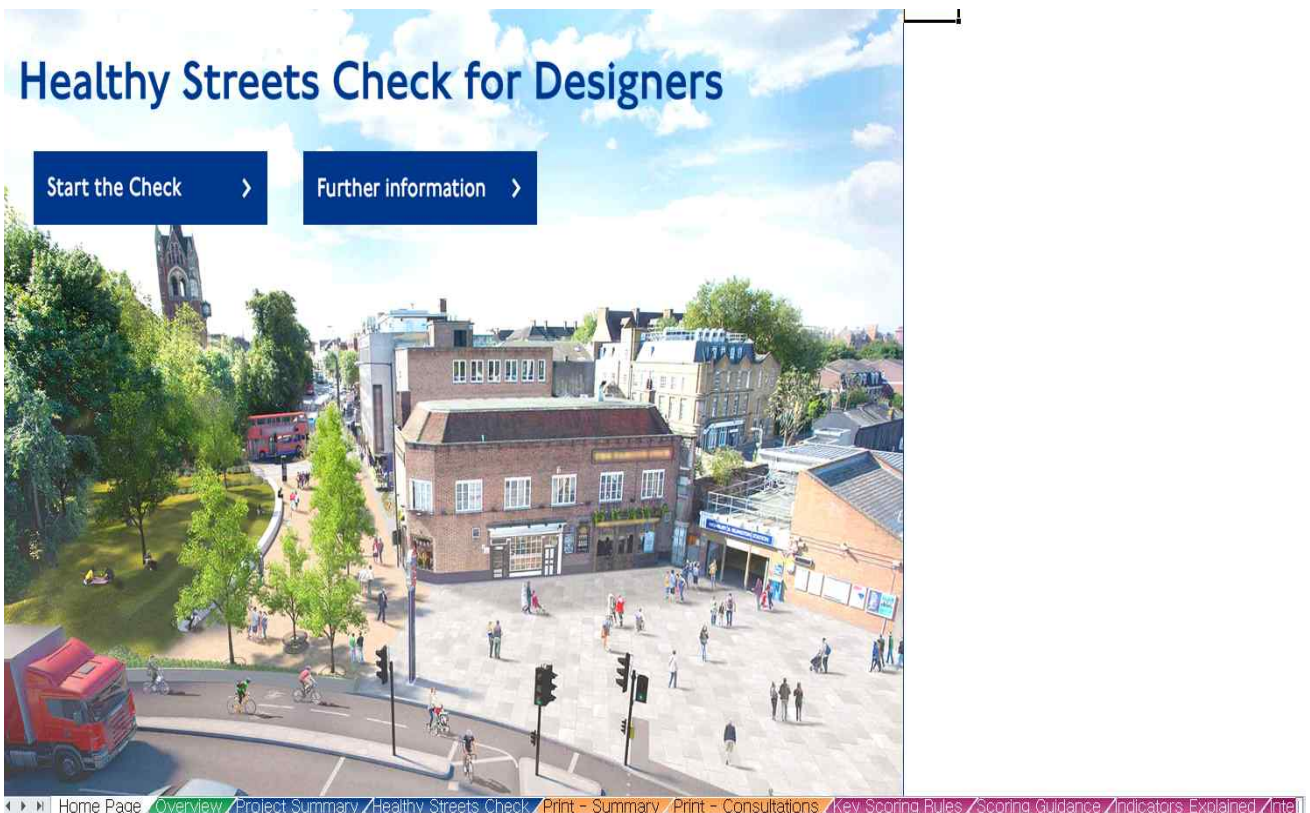
- ▶ Shortlands, Bromley: 브롬리 로드와 벨리 로드의 새로 보호 사이클 레인과 혼잡한 A222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보행자 교차로를 통해 쇼트랜드 역과 주변 지역 너머까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거리 연결을 개선. 전쟁 기념관 및 마을 중심부 주변에 새로운 공공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 곳곳을 산책할 수 있는 포켓 공원 조성 및 개선이 이루어지며, 특히 스테이션 로드는 새로운 포켓 파크의 도입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쇼트랜드 역에 새로운 사이클 허브가 건설. 스쿨 스트리트는 학생들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주택가의 교통량을 극적으로 줄일 예정
- ▶ Holborn, Camden: 홀본 지역은 현재 교통이 혼잡하고(기차역과 주요 도로가 연결), 부적절한 보행 공간, 열악한 사이클링 시설을 가지고 있음. 이 프로젝트로 도로 단절을 줄이고, 공공 영역을 크게 개선하고, 하이 홀본과 테오발즈 도로를 따라 보호 사이클 레인을 도입하는 방향. 뉴 옥스포드가와 그레이트 러셀가의 구간은 자동차에 폐쇄될 것을 제안하고 블룸즈베리가의 구간은 버스와 자전거 전용으로 제안된다. 그레이트 러셀 스트리트를 보행시키기 위한 계획은 영국박물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홀본 역 주변의 향상된 보행자 환경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예정. 지역사업개선지구인 비미드타운과 협력하여 화물감축계획을 추진
- ▶ South Bermondsey, Southwark: Bramcote Park 부지에 대한 투

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훨씬 더 쉽게 해주고 이 지역을 향후 사이클웨이4번 로드와 올드켄트로드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자동차 사용을 줄일 예정. 도로는 폐쇄될 것이며 교차로는 다시 설계되어 건너기 쉽게 만들 것

5-4) 디자이너 등 를 위한 체크 리스트 제공

- 건강한 거리 접근 방식은 공공 공간을 설계, 관리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사 결정의 중심에 사람들과 그들의 건강을 두고 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모두를 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접근법은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10가지 건강한 거리 지표를 기반으로 함. 이 접근 방식을 이행하는 실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런던 교통국(TfL)에서 지침과 도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위한 건강 거리 점검(HSCD)은 이러한 도구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개발
- TfL, 런던 자치구 또는 민간 부문에서 설계자가 10개의 건강 거리 지표와 비교하여 새로운 계획에 대해 제안된 설계가 개선되도록 한다(이 거리의 기존 조건과 비교).

<https://tfl.gov.uk/corporate/about-tfl/how-we-work/planning-for-the-future/healthy-streets>



3 . 교육프로그램

1) UDL(Urban Design London)

- 설립이유 : 건설·환경 전문가와 의사결정자들이 더 나은 공간과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 런던시, 런던시의회, TLF 등이 주요 후원자이며 건축가, 공무원 등 디자인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강의, 네트워킹에 참여
- 수행목적 : 주로 건축 환경에 새롭게 변경된 설계사항의 전달을 촉진하고 기존 장소와 공간을 관리
 1. 고품질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열정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건설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구축하며, 관리하는 사람들을 지원
 2. 공공부문의 환경실무자 및 지역참의원 등을 지원하여 좋은 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발자, 건축가, 주택조합, 도시설계자, 고속도로 및 계획 설계자와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
 3. 좋은 환경설계의 전달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 및 실천요강에 영향을 주어 공중보건, 연구, 학계 등 분야와 협력하여 모범사례의 개발과 보급
 4. 좋은 디자인을 위한 열정적인 공공 옹호자가 되어, 도처에 우수한 장소를 만드는 것을 지원
- 프로그램 및 2020/2021 커리큘럼(1년 전에 프로그램 및 일정 공지)
 - (1) london Programme : 도시 디자인, 계획, 주택, 경관, 공공 영역, 거리 및 교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초점, 4월~11월까지 약 50회 프로그램 제공

날짜	프로그램	내용
2020/4 (1)	H o u s i n g Targets & Delivery Plans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새 집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주택들이 건설과 보급에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방법
2020/4 (2)	M a n a g i n g Regeneration in Center london	런던 중심부의 재생 관리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대화. 이 세션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날짜	프로그램	내용
2020/4 (3)	M a n a g i n g streets during lockdown : world wide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 미팅. 뉴질랜드, 오클랜드, 뉴욕과 같은 몇몇 장소들은 COVID-19로 야기된 이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더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자전거 도로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런던에도 적용가능한 지에 대해 토론
2020/4 (4)	C r e a t i n g Inclusive and A c c e s s i b l e Streets	보다 보편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설계 접근법
2020/5 (1)	M a n a g i n g streets during lockdown : London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 미팅. 앞으로 다가올 락다운 해제 단계 중 도로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
2020/5 (2)	Design Quality : Management plans	조직에서 설계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는 실제적인 방법 학습 성과 · 설계 품질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의 개요 제공 - 지금까지의 상황은? · 다양한 조직의 실무 경험 품질 관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앞으로 나아가는 트렌드는 무엇이며,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도구가 있는가? 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변화의 시기에 계획이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가?
2020/5 (3)	Introduction to Urban Desing	도시디자인이 무엇인지, 훌륭한 장소를 만드는 기본원리 -National Design Guidance, Esther Kurland, UDL -Street design basics, Paul Dodd, UDL -Housing design fundamentals, Susan May, UDL

날짜	프로그램	내용
2020/5 (4)	How london developed	<p>도시계획에 대한 과거 사례를 통해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되돌아보는 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의 인구 역사, 페스트를 포함한 도시 사망률,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 바네사 하딩, 버크벡 대학교 • 런던의 레이어즈: 프로젝트 정보, 그리고 중세 및 초기 현대 런던(1300-1700), 버크벡 대학교 매튜 데이비스 • 교통 허브가 런던의 확장, 에드먼드 버드, TfL를 어떻게 개발하고 지원하는가
2020/5 (5)	Managing Streets During Lockdown: Playing out	<p>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길거리 3번째 시리즈</p> <p>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락다운 해제 단계에서 거리가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nah Bornat, ZCT Architects
2020/5 (6)	Planing Debate	<p>런던 계획에서 어떠한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와, 이 계획이 국가 및/또는 지역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ndy Higham, LB Enfield o Jonathan Wade, Kensington and Chelsea의 왕립 자치구 o 닉 칼더, LB 완즈워스 o Kathy MacEwen, UDL
2020/5 (7)	Managing Streets During Lockdown: Design Options	<p>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길거리 4번째. 시리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및 거리 변화 방법 - 크리스 윌리엄슨 • 최상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거리 및 설계 옵션을 사용하는지 이해 - Debora Sunt, DSHA • 현재 접근 방식 및 설계 레슨 업데이트 - Sophie Thompson, LDA Design • 설계 아이디어 모음 - Public Practice Associates •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TfL 지침 및 대응 - Rana Ilgaz & Paul Lavelle, TfL

날짜	프로그램	내용
2020/6 (1)	Space to Play	야외 활동은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도록 돕는다 - 특히 팬더믹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종류의 놀이에 좋은 장소를 만들 수 있는지 세션
2020/6 (2)	Delivering House Quality	모든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있는 잘 설계된 집을 원한다.. 이 세션에서는 당신의 계획이 이 모든 과정을 잘 설계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세션 개요: 주택 품질의 중요한 측면과 현재 당면 과제 - Sadie Morgan OBE(DRM) 설계 품질 과제:Borough, Architect, Developer, Housing Association 및 Community의 관점 - 엘리엇 캠프(GLA), 아니샤 조가니(LB Croydon), 아이린 크레이크(Levitt Bernstein), 셸리나 메이슨(렌드리스), 루크 라일리(SwanHousing), 스티브 매카담(Sounds) 및 커뮤니티 패널 토론: 변화하는 시대적 주택의 질
2020/6 (3)	Managing Streets During Lockdown: Town Center, Parking & Deliveries	이 세션은 우리 마을 회관의 종종 복잡한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봉쇄 기간 동안 배달과 주차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복구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Town Centre Needs, Steve Norris Designing Multi-use High Streets, David Makenna How Leicester is making streets better for people, Cllr Adam Clarke East Street, Bristol, Michael Cowdy The Lambeth Approach, Joel de Mowbray Bringing high streets back at the heart of our communities, Saskia Huizinga
2020/6 (4)	councilor's Network: covid-19 Response	이번 네트워크 행사는 구가 Covid-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신 연구, 지침 및 모범 사례를 공유

(2) Natinal Programme : 영국 전역의 건설 환경 담당자와 참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시 계획, 주거, 공공 영역, 거리 및 교통 주제를 다룬다.

날짜	프로그램	내용
20.9.30	Active travel fund : Designing compliant schemes	새로운 국가 자전거 및 보행 계획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기반시설 설계에 관한 개정된 국가 지침을 공개
20.11.4	Health& Place	건강한 삶과 건강한 거리를 위한 건축 등을 포함하여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움이 되는 중요 도구를 소개하고 설명. 우리는 성공적이고 건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유형을 안내.
20.12.15	Managing permitted Development & prior Notification planning process	지방 자치구가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관련 사전 통지 고려사항 및 이 시스템에 따라 설계 품질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방법
21.1.13	How to build council home	이 세션은 특히 자신만의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지방 당국 업무의 이 중요한 영역에 걸친 모범 사례, 현재 트렌드를 고려
21.2.2	covid-19 related street changes	covid-19로 인해 도시 중심가, 자전거 도로 및 포장도로에 대한 변화를 재고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변화와 일시적인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 될 수 있는지 기대하고 검토
21.3.17	using design codes& other tools	우리는 디자인 코드와 디자인 리뷰를 포함하여 우리가 잘 디자인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방법을 제공. 업데이트 정보가 나온다면. 정부 디자인 코드 작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

날짜	프로그램	내용
21.4.15	planning for successful neighborhoods	무엇이 지역민을 경쟁하게 하고, 계획, 교통 및 공공 영역 개입이 어떻게 그들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려. 우리는 대표자들이 그들 자신의 영역을 개선해야 했던 아이디어를 논의
21.5.4	Viability&social value	이 중요한 세션은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고 모든 실행가능성 평가의 필수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 변경 및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21.6.8	manual for streets update	2020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새로운 버전의 스트리트 매뉴얼.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을 살펴볼 것이며 high street 팀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더 나은 거리와 공공장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
21.7.6	national housing design awards site visit	직접 방문할지, 인터넷 버추얼 미팅이 될지는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짐 하지만 최근 schemes을 이용하여 지어진 잘 만들어진 건축 사이트를 통해 교훈 도출

(3) Networks : 공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관리하는 사용자(주로 시공무원, 건축가, 시의원 등)를 위한 것이며, 모범 사례를 만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National Design workshop

- 연혁

- 2018. 7~2019.7 기간 동안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MHCLG)에서는 8개 지역의 92개 구, 233명의 시의원, 기획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예방적 주택 설계프로그램으로 원탁 회의를 조직
- 가장 자주 제기되는 이슈는 i) 국가 정책, ii) 지역 관행 및 iii) 자원이라는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로 분류됨 그 중 지역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티 참여, communicating designs, 시의원,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 등의 해결방안이 도출

- Community Engagement관련 정부 규정 및 정책, 지침

- 규정: 지역 기획 당국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정책을 규정하는 지역사회 참여 성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5년마다 검토하여 계획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커뮤니티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정책: 국가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

- ▶ Para 125 설계 정책은 지역적 포부를 반영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개발되어야 하며, 각 영역의 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 ▶ Para 128 지원자는 지역사회를 고려한 설계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초기, 사전 예방적, 효과적인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그렇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호의적으로 보아야 한다.

- 지침: 2019년 발간된 설계계획 실무지침(PPG)에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권한 부여에 관한 지침이 강화되었다. 이 지침은 지역사회 참여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

- ① 계획 및 의사 결정과 연계하여 정책 및 개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 지역사회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매개변수를 확보

- ③ 커뮤니티의 다양하고 대표적인 샘플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키십시오.

④ 접근성 확보 - 실제 및 사용되는 통신 방법을 통해 접근 가능 : 커뮤니티의 견해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커뮤니티에 포함시키십시오.

- 지역사회 참여 프레임 워크 소개 및 진행방법

· 지역사회 프레임워크는 지역사회가 왜 중요한지, 강한 지역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정부와 지역 파트너들이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4개의 축으로 설명

① 신뢰, 연결성 및 지역적 자부심 ② 적극적 시민권 및 지역통제 ③ 공유 커뮤니티 공간, ④ 공동 번영

· 진행방법 및 제공자료

① 정부공무원, 지방공무원, 건축가, 지역활동가로 테이블을 구성

② 효과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위해 토론시 고려사항 제시

-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가 커뮤니티 참여 절차를 주도할 경우 눈에 띄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점

- 거주지 외부에 있는 지역사회의 우려

- 지방 및 국가 정부의 우선순위에서부터 지역사회가 단절되었다는 인식(예 :주차장 감소)

- 지역사회의 균형적인이고 일반적인 관점이 아닌 이익집단으로부터만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지역사회에 발언권을 주는것과 최선을 보장하는 것이 타 지역과의 균형을 위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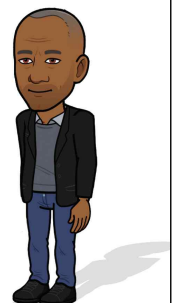
③ 최근 사례 프리젠테이션 후 그룹디스커션 진행

④ 아이디어제시 ▶ 해결방법 찾기 ▶그룹별 해결책 제시 후 상호 피드백

• 거주민 인텔스 인터뷰로 도출된 Persona의 5개 타입의 자료 제공

예시1) 이름: 피터, 사는곳 :Altrincham. 나이: 68세

나는 지금 10년 넘게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알트린담에 있다. 나는 이곳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지역 음악선생님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이사와서 Thurrock Way이 새롭게 건설한 집입니다. 내 아내는 시의원입니다. 나는 지금 4개의 다른 교수직을 가지고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고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공간으로 바꾸었고, 거기서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 협회를 설립했고 3년째 의장직을 맡고 있다.

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변화가 무엇인가?

알트린담은 빠르게 성장하는 통근 도시로서, 수십 년간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재생을 경험하고 있다. 맨체스터와 가깝고 좋은 교통 연결로 인해 이곳은 새로운 도시 개발의 주요 장소가 되었다. Altrincham은 성장과 재생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고 그것은 현재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 중 하나이다. 빈곤 수준을 인정하여 정부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심의 재건을 촉진시켰다. Trafford Council은 Part 1 Trafford 공동 Core Strategy에서 후속하여 지원하는 Part 2 Altrincham에 대한 지역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 변화와 참여에 대한 생각

이곳의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힘들다.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은 20년이 걸리는 일이고 우리는 현재 10년째이다. 일반적으로 나는 내 견해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선의도 있지만 대체로 매우 관료적이다. 개발자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어렵다. 개발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들은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반응조차 없다. 그건 끔찍하고 무력하게 느껴져. 그들의 의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트라포드 위원회와 협력하고 노력하며, 단지 그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자들은 이것을 돈을 버는 방법으로 보는 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긴 안목을 보려고 한다.

지역사회 협회의 일부로서 우리는 작은 핵심 그룹을 가지고 있다. 6명이 있는데, 대부분 은퇴한 했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좋은 장소 만들기를 생각하는데 투자한다. 공동체협회 알트린담 지역계획의 2단계 협의에 참여하여 현재 회의는 대부분 그것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매달 회의를 하고 나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말을 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회의의 특성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으며 지루하게 여긴다. 반면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의제 등을 가진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나타난다.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더 비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문화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문화 행사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것을 위해 정말

강력하고, 음식도 사람들을 연결하는 환상적인 방법이다! 만약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지원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참여하고 싶다. 때때로 의회 절차의 관료주의는 우리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제지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은데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만약 의회가 진정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결론 도출을 위한 제공되는 frame work 자료

Worksheet: User journey map

Your Journey Mapping will be used as a way of developing your engagement strategy from a user's perspective.

Using your website/Platform and the template below explore the engagement journey, starting from the user's point into the process, ending with the target you achieved. The tool should be used as a guide to think of the strategy you are developing and it shouldn't be used as a guide to think of the strategy you are developing and it shouldn't be used as a guide.

Name of persons

Name of the engagement activity / initiative

	Entry point / Start of the process	The middle of the process	The end of the process	The legacy of the process
<p>Aims <small>What is the purpose of involving people at this stage? What level of engagement is this?</small></p>				
<p>What is happening? <small>Describe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what is happening at each stage of the process.</small></p>				
<p>Touchpoints <small>The digital or physical things and places they interact with.</small></p>				
<p>People they interact with <small>Describe formal and informal interactions they have.</small></p>				
<p>Backstage <small>What work needs to happen behind the scenes? Who needs to be involved? What resources are needed?</small></p>				

3) 그 외

3-1) Design council inclusive design 온라인 강의

- 목표 : 사람들의 다양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소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공정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된 환경을 포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건축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계획자, 새로운 건물과 장소를 의뢰하는 사람들, 액세스 컨설턴트, 디자이너, 건축가, 엔지니어, 평가관, 부동산 소유자 및 시설 관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과정 : 무료 대화식 온라인 교육 과정 (<https://inclusive.designcouncil.org.uk/>)으로 구축된 모든 환경 전문가와 관련된 포괄적인 설계를 소개함. 그것은 건설 환경 전문가들이 새로운 장소의 조성에 대한 이해와 포괄적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영국 전역의 핵심 기관 및 포괄적 설계에 대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발됨
- What are Inclusive Environments? Why Create Inclusive Environments? Inclusive Environments in the Legislation/ Getting Inclusive Design Right / The Inclusive Design Process/The Value of Engagement/Balancing Requirements.

3-2) 공공부분 인재 유치

- 필요한 이유 ; 지방정부의 기획부서는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위해 건설할 것인가 등 미래의 런던을 구성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낮은 임금 등으로 인재 유체에 어려움이 겪고 있음
- 유치전략 : Public practice 9)
 - Great London Authority가 2017년 9월 설립한 비영리 기업으로, 공공, 제3 및 민간 부문 6개 창업파트너스가 자금을 지원

9) 공공부분의 사전계획 역량 구축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의미

- 런던과 더 넓은 남동부 전역의 36개 지방 당국 내에 84명의 실무자를 배치. 이 실무자들은 계획 수립, 건축, 조경, 측량, 토목 공학, 디지털 혁신, 보존 및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구축 환경 분야 출신. Public Practice는 다양성에 전념하여 런던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런던 자체의 다양성을 반영
- 단순히 지자체에 근무하는 구축된 환경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위상을 바꾸고, 그 안에서 일하는 이들이 앞장서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건설된 환경 실무자와 그들의 공공 기관 호스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독특한 전문 배치 프로그램 개발
- 좋은 공공계획이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임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 환경 전문가를 의미하는 공공 기획자가 되는 것은 매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리 주변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은 없다는 인식 함양
- 작업방식은 지방 당국은 어소시에이트의 급료를 지불하고 공공실무자에게 배치당 5,000파운드 - 7,000파운드의 배치 수수료를 지불하고 단체는 조직 운영의 핵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파트너로부터 기부를 받는다. 이것은 단체가 공공부문에 부과되는 우리의 수수료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후보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Associates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 2019/20년에는 수입의 55%가 배치 수수료에서, 45%는 파트너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

○ Transport for London의 Inclusive design 어드바이저 배치

- Inclusive design는 Inclusive design에 대한 사고 리더십과 전략적 방향을 담당하는 Diversity and Inclusion team에 소속된 전담인력
- 주요 업무:
 - 설계 표준 및 정책 담당자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포함 그들이 TfL과 더 넓은 운송 분야에 포괄적 설계가 포함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변경 전략 제시
 - 시장의 포괄적 런던 전략 내에서 교통 관련 목표, 시장의 교통 전략 내에서 접근성 목표 및 런던 계획 내에서 관련 정책을 제공하는 보다 통

합되고 조정된 활동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영향력 발휘

- 새로운 포괄적 설계 지표의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 설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
- 중소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포괄적 설계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 지침 및 전문가 과제 제공
- 포괄적 설계 정책, 표준 및 미래 사고에 대해 조직에 전략 조언 제공
- TfL 및 공급망 전체에 걸쳐 포괄적이고 관련성이 있으며 최신의 포괄적 설계 지침 및 교육 활동 제작 및/또는 공유
- 성별 및 신경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사고 영역과 안전, 수익 및 승객 만족도에 대한 포괄적 설계의 이점을 홍보하는 등 포괄적 설계 내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을 인지하는 능력 향상.

- 주요 역량

- 교통, 공공영역의 개발, 런던(Transport for London) 토지 (Building Regs, Part M 및 BS8300 및 교통 촉각 포장 가이드 포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
- 교통에 관한 평등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
-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상세하고 철저한 이해
- 철도, 버스 및 튜브 접근성 표준, 제한사항 및 적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TfL과 관련된 런던 전체 및 현지 계획 지침의 이해
- 런던과 그 다양성 및 포함 경관에 대한 이해.

III 결론-시사점

초고령사회,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수 불가결하며, 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분야별 추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한다. 물론 서울시는 그 동안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이제 확대 실행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인크루시브 디자인 대 시민 인식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

- 공공공간(영역)의 적용범위 점증적 확대 및 시민이 인지하기 쉬운 평가 지표 개발 필요

- 공공 공간은 도시의 필수적인 요소들 중 하나로 지역에 장소 감각을 부여하는 중요한 곳임. 이곳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거래하고, 토론하고, 또는 단순하게 이동하기 위해 모이는 곳. 이 공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연결점이기 때문에 공공 공간은 시민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을 위해 완전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하여 런던의 경우 공공공간을 폭넓게 정의하고 공간을 설계시 인크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 특히 런던플랜에 의거한 공공공간(영역)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열려있는 공간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거리, 광장, 공원, 공원과 공토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건물들 사이의 공간과 건물 내부의 공간으로 개인소유 및 국가 소유에 관계없이 템임즈와 런던강가를 포함한 골목 및 도로, 마켓과 쇼핑몰, 공중 정원, 박물관등도 공공 영역으로 고려되고 관련된 Standard와 정책평가 지표, 정책 집행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다.
- 서울시 또한 공공공간(영역)의 적용범위가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에 의거하면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의 3개 부문 7개 영역, 29개 세부항목이었고 2021년부터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로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이 포함된 곳에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의무적 적용을 앞두는 등 차츰 넓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공간의 정의를 시민의 입장에서 복잡하다.
- 공공공간의 범위를 적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2019.12.31.) 제7조(적용범위) 에 의거하면 1. 건축기본법 제3조제 3호의 공공공간(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 및 디자인 사업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대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열되어 있다.

- 또한 런던의 도시 디자인 정책 및 런던의 건강한 거리 만들기 사례에서 언급하였듯 런던은 공공디자인의 핵심으로 거리 디자인을 꼽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런던시민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건강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를 지표 구성하였고 그 지표는 시민이 인지하기가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다.

	일반인	여성	노인	시각장애인
보행편의성	평균 경사도			
	보도 유무			
	보도 마감 (재질)			
	보행장애 정도 (장애물)			
			점자블록 (유무)	
접근성			점자블록 (연속성)	
	주거용도 용적률 평균			
	상업용도 용적률 평균			
	업무용도 용적률 평균			
	생산용도 용적률 평균			
	의료용도 용적률 평균			
	자동차시설 용적률 평균			
	공공서비스시설 용적률 평균			
	문화시설 용적률 평균			
	종교시설 용적률 평균			
대중교통 연계성			장애인편의시설과의 거리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거리			
정보제공 편의성	안내시설 (인지용의성)			
	치안시설과의 거리			
안전성			음향신호기 유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횡단보도)			

보행자 유형별 보행지표
(제1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



런던의 건강한 도로 만들기 10대 지표

- 정책은 정의(define)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질 때 정책의 성공 확률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런던이 포용 정책이 시민들에게도 쉽게 인지되는 이유는 정책 적용범위 및 지표의 인지가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CABE 발간한 포용정책 원칙을 설명한 자료집 표지의 제목은 바로 “they include you”이다. 이 정책은 장애인, 외국인, 어린이, 노약자뿐만 아니라 나도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간결한 메시지에서부터 시민의 높은 정책 인지도,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Inclusive 전문가 양성 필요

- 유니버설 디자인 공무원 인지도 조사(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실시, 2018)에 따르면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인지도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50.5%), ‘관심이 없다’(25.6%), ‘매우 잘안다’(5.1%)로 나타났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경험이 없다(94.7%)가 있다(5.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참여 부족에 대한 응답으로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어서’(42.9%), ‘업무상 바빠서’(28.6%), ‘교육과정은 있으나 제공되는 내용이 별 효과가 없을거 같아서’(21.%)로 조사되어 공무원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 실질적 지식은 얇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성공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무원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 지방정부는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위해 건설할 것인 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이것은 미래의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함으로 유능한 인재를 성공적 프로젝트를 견인하는데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 런던은 공공분야에 인재유치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낮은 인금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있어 결국 ‘Public Practice’ 라는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런던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 및 사회 활동가, 건축가 등에 초점을 맞춰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은 잘 디자인된 공간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 디자인된 공간을 더욱더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실무자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년 단위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워크샵, 자료집을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의 소양을 높이는데 중점을 주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도 단계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디자이너, 건축가, 활동가, 공무원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주선하여 정책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이 Inclusive디자인 정책으로 인해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보고서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안양: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8)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2010/08)

제1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집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2018.12)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통계청)

THE DRAFT LONDON PLAN (Mayor of London, 2019)

Inclusive design standard

(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 2019)

The principles of inclusive design. (CABE)

British Standards:

- BS 5395-1 Stairs - Code of practice for the design of stairs with straight flights and winders, 2010
- BS 6440:2011 Powered vertical lifting platforms having non-enclosed or partially enclosed liftways intended for use by persons with impaired mobility. Specification
- BS 7594:2011 Code of practice for audio-frequency induction-loop systems (AFILS)
- BS 8300-1:2018 Design of accessible and inclusive built environment Part 1: External Environment
- BS 8300-2:2018 Design of accessible and inclusive built environment Part 2: Buildings
- BS 9999:2008 Fire safety code of practice for the design, management and use of buildings
- BS 9999:2017 Fire safety code of practice for the design, management and use of buildings, 2017
- BS EN 115-1:2008+A1:2010 Safety of escalators and moving walks.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 BS EN 81-70:2018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lifts. Particular applications for passenger and goods passenger lift. Accessibility to lifts for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y

GLA / TfL:

- Diversity and Inclusion Impact report (TfL, 2017/18)
- Walking action plan(TfL)
- Making London the world's most walkable city
 - Healthy Streets for London, TfL, 2017
 - Mayor's Transport Strategy, GLA, 2018
 - Olympic Legacy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GLA, 2012
 - Shaping Neighbourhoods: Accessible London: achieving an inclusive environment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GLA, 2014
 - Shaping Neighbourhoods: Children and Young People's Play and Informal Recreation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GLA, 2012
 - Walking action plan. Making London the world's most walkable city, GLA, 2018

2. 홈페이지

www.london.gov.uk

<https://www.livingstreets.org.uk/get-involved/local-groups/croydon>

<https://www.londonfestivalofarchitecture.org/>

<https://www.londondesignfestival.com>

<https://www.futurefoyle.org/>

<https://www.designcouncil.org.uk/id-scale-setting/public-realm?page=8>

<http://www.inclusivedesigntoolkit.com/whatis/whatis.html>